

## 2025년 지역 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적격성 심사 총평

- 심사분과 : 2026년 지역재단예술기업매칭펀드 지원사업 적격성 심사
- 회의일시 : 2026년 03월 20일(금) 13:00~15:0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위원회의실)
- 심사위원명(가나다순) : 김소영, 김현환, 우현희, 이의신, 정철

먼저, 지역 주도의 문화예술 후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참여해주신 각 지역재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기업과 예술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이어간 점은 본 사업의 정책적 가능성과 후원 결연모델 현장 수요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본 심사에서는 총 18건의 신청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적 결격 사유 없이 전 건을 심사대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제척·회피 기준 준수 및 옴부즈만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이행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사전에 개별 온라인 평가와 전체 심사회의 종합 토론 및 최종 의결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의 적격성과 공고 취지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매칭펀드 사업의 핵심 취지인 '기업 후원 연계 기반의 개방형 공모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결연된 기업 및 예술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한 채 신청한 사례는 지역별 예술-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으며, 지역에서 계획한 공모 설계 방식과 관련해서는 재단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참여 대상을 사전에 제한하는 경우로 보아 기업-예술 간 새로운 연결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사업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본 사업이 지향하는 매칭펀드 모델의 본질적 가치와 일정 부분 간극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예산 편성 측면에서도 사업비, 운영비 산정 등에서 제시된 산식이 잘못 적용된 사례, 사업 운영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예산 교부 이전 단계에서 실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심사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연계하는 등 사전 관리체계를 위원회에 당부합니다.

신청서 양식 중 '전담부서 설치'는 조직운영 체계성의 심사기준인 '전담인력 구성'과 용어가 불일치하여 심사 과정에서 해석의 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역

문화재단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기준 중심으로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종합하자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지역별 공모 구조의 개방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운영체계의 실행 가능성 등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제도 개선과 사업 고도화를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본 사업이 지역 예술과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형 지원 모델'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라며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도 제고, 예산 설계의 명확성 강화, 실행관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지역재단이 보여준 참여 의지와 축적된 경험과 노정이 본 사업이 점차 내실을 갖추고, 지역과 예술 그리고 기업 간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견인차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지역재단예술기업매칭펀드 지원사업 심사위원 일동